

年次大會 뒷이야기

◇ 큰소리 치며 공짜입장

아침 부산한 등록대 앞에 건장한 중년신사가 나타났다.

“나 아무개인데 명찰 없소.”

“등록금을 내신 분에게만 드리고 있는데요.”

“당신, 날 모르는 모양인데 상관에게 야단 맞기 전에 어서 명찰 만드는게 좋을거요.”

“이해해 주십시오. 등록금을 내신 분에게만 명찰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꼭 막혔구면, 나 그냥 들어갈테니 알아서 하시오.”

가슴을 딱 벌리고 활개쳐 입장하는데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



◇ 짜증스러운 교통체증

경주와 고리로 여행을 떠났던 오롤로프 소련원자력학회장의 귀경시간은 오후 4시이다. 영접자는 오후 2시에 셰라톤워커히호텔을 출발하여 공항으로

차를 몰았으나 올림픽도로에 진입하면서부터 길이 막혀 공항에 도착한 것은 4시 20분이었다. 오롤로프 회장은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돌아왔고 영접자는 실의를 안고 빈차로 돌아왔다. 서울의 교통체증이 사람을 울린다.

◇ 실력 발휘한 카메라취재팀

원자력산업지의 편집자 박춘권은 후리한 키에 어울리는 비데오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대회장을 누비고 다녔다. 주위에서는 “저 친구가 작품을 만들어낼지 걱정인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의외에도 그 실력을 공인받는 기회가 왔다.

대회 개최식과 조인식 촬영을 놓친 모 TV가 자료화면이 없어 찢찢매고 있는 것을 본 박이 “내가 찍은 비데오 화면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제의, 즉석에서 TV 수상기에 연결하여 점검해 본 결과 “이 화면은 전문가를 능가한다”고 극구 칭찬하고 빌려쓰기로 약속되었다.

저녁 9시 TV 앞에 모여 앉았던 직원들은 박이 찍은 화면이 뉴스로 보도되자 박수를 치며 화이팅을 연발.

◇ 진통 거듭한 논문집 발간

이번 대회기간중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은 논문집 발간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장호현이 작업을 맡았으나 세계 11개국에서 보내오는 56편의 논문을 접수하고 이것을 분류하여 교정 편집하는 일은 고역중의 고역이다.

원고마감 기일을 지킨 것은 80%뿐이고 나머지 20%가 기일을 넘겼는데 그중에는 편집이 끝난 뒤에 접수한 것도 있고 책이 나온 다음 수정을 요구



하는 발표자도 있어 거기에 맞추노라 몇일씩 밤을 새워야했다. 간신히 대회전까지 720면에 달하는 대 논문집을 출산했으나 그동안의 산고는 정말 죽을지경이었다.

◇달라진 대회풍경

이번 대회가 이채를 띠었던 것은 짧은 층과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숙명여대의 金明子학장이 의장을 맡아 우아한 사회솜씨를 선보였는가하면, 미국원자력계발협회의 비스콘티부회장이 여성 특유의 낭랑한 목소리로 주제발표를 하여 남성을 압도하는 위세를 보이기도.

또 한가지 특색은 발표자마다 준비자료에 성의와 애착을 보인 점이다. 대회진행자측에서는 미리 슬라이드류를 인수받아 사전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발표자들은 혹시 슬라이드가 섞이거나 분실될까 봐 관계자에게 내주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애를 먹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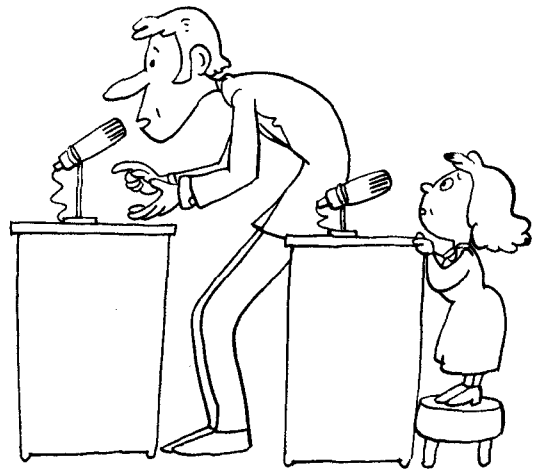
하기사 정성껏 만든 자료이니 애지중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참으로 멋 있는 친구들이다.

◇장신과 단신

단신의 여성 발표자가 등단했으나 연단에 가려 앞이 안보이자 관계자는 발판을 준비하느라 동분서주.

이 발표자는 발판 위에 올라서서 기쁨을 토해 청중을 웃겼으나 뒤이어 등단한 소련의 라보트노프씨는 2미터가 넘는 장신으로 부라부라 발판을 치우고 마이크를 높였으나 키가 워낙 커서 꾸부정한 자세로 연설하여 또 한번 웃겼다.

키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키가 너무 큰 것도 문제인지 청중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



◇열기있는 기술회의

여느때와는 달리 기술세션은 열기로 가득했다. 미리 참석의향조사를 하고 참석인원에 맞는 회의실을 배정했으나 「신형원자로」를 주제로 한 세션1과 최종일 오후에 배치된 「선진기술」의 KNS세션은 예상밖의 인기로 초만원.

특히 세션1은 좌석이 모자라 여벌의자를 30개나 더 넣었다. 진행측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몇분 후에는 나가버리겠지 기대했으나, 끝까지 버티어 주었을 뿐 아니라 토론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내일이 밝다는 것을 실증. 세션1과 KNS 세션의 조직과 진행을 열성적으로 맡아준 과기원의 조남진교수, 그리고 서울대 이은철교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